

제60회 합격자 김O수	
-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졸업

키워드: 상표 고득점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60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김O수라고 합니다. 길고도 짧았던 수험 기간 수많은 선배님의 도움과 조언을 받았고, 그 결과 저 또한 합격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추후 변리사 시험의 길에 들어서게 될 수많은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글을 작성합니다. 수험생활의 시작에 길잡이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읽어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II. 변리사 시험 진입 (진입 전(진입 시) 상황 또는 진입 동기)

변리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시점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이공계 전공으로서 할 수 있는 전문직종을 탐색한 결과,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 퀄컴과 같은 세상을 이끄는 기업들의 기술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먼저 이를 알고 권리화할 수 있다는 점에 아주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III. 시기별 공부방법

1. 초시 (2018년 상반기 ~ 2018 하반기)

2018년 3월 TOEIC 성적을 딴 뒤, 이준석 변리사님의 물리 수업을 인강으로 수강했습니다. 2018년 4월부터는 이상윤 교수님의 민법 강의를 현강으로 수강했습니다. 2018년 5월 서형석 교수님의 화학 강좌를 인강으로 수강했고, 임병웅 변리사님의 특허법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2018년 6월 박종태 변리사님의 상표법 강좌를 인강으로 수강했고, 2018년 7월 김인배 변리사님의 디자인보호법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기본강좌 수강이 끝나면 바로 객관식 문제 풀이를 시작했고, 연말에 학원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에 2회 정도 응시했습니다. 당시 1차 성적은 민법 92.5, 산재법 82.5, 자연

과학 72.5로 평균 82.5로 통과하였습니다.

2. 동차 (2019 상반기 ~ 2019 중반기)

동차 시기에는 이창한 교수님의 민소 기본, 사례, 기초 gs, 실전 gs를 수강하였고, 서평강 변리사님의 특허 기초 gs, 실전 gs, 정진길 변리사님의 상표 기초 gs, 실전 gs를 수강했습니다. 또한 이준원 변리사님의 디자인보호법 기초 gs, 실전 gs를 수강하였습니다. 기타 타 gs는 수강하지 않았고, 위의 과목들을 복습하면서 회독을 늘려 동차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3. 기득 (2019 중반기 ~ 2020 하반기)

기득 시기엔 이창한 교수님의 민소 심화 강의를 수강했고, 실전 gs가 개설되기 전까지 구선아 변리사님, 박승수 변호사님 gs를 구매 스터디원들과 풀었습니다. 이후 이창한 교수님의 실전 gs a, b, c형 모두 수강하며 풀었습니다.

상표는 최지환 변리사님 기본강의, 실전 gs를 수강했고, 이후 정진길 변리사님 실전 gs, 김영남 변리사님 실전 gs를 수강했습니다. 특허는 박형준 변리사님 기본강의, 실전 gs a, b형을 수강했고, 박지환 변리사님 실전 gs, 남솔윤희 변리사님 실전 gs를 수강했습니다. 선택과목은 회로이론으로 바꾸어 양진목 교수님의 기본 강의, 실전 gs를 수강했습니다.

기득 시험 결과 0.23점으로 소숫점 탈을 하였고 이후 수험 공부에 크게 의욕을 잃어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2022년 중반기에 이르기까지 변리사 시험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4. 삼시 (2022 중반기 ~ 2023 중반기)

대학교 졸업을 하고, 2022년 8월부터 1차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김동진 교수님의 민법공방연습 교재를 구매해 반복해서 풀이하였고, 남솔윤희 변리사님께서 집필하신 1차 교재를 기반으로 특허 공부를 했습니다. 최지환 변리사님의 1차 교재를 기반으로 상표 공부를 하였고, 이후 모의고사에서 민법 성적이 안 좋아 2023년 1월에 김동진 교수님의 민법공방연습 풀이강의를 빠르게 수강했습니다. 또한, 1월 한 달 동안 박준희 교수님의 최종정리 강의, 최지환 변리사님의 최종정리 강의, 김웅 변리사님의 최종정리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1차 시험 결과 민법 80, 산재 80, 자과 60으로 평균 73.3 점을 받아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민소 과목은 객준형 변리사님 실전 gs, 이창한 교수님 실전 gs를 수강하였고 상표 과목은 최지환 변리사님 실전 gs, 한경훈 변리사님 실전 gs, 특허 과목은 남솔원 변리사님 실전 gs, 박형준 변리사님 실전 gs를 수강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정다운 변리사님의 기본 강의, 실전 gs를 수강했습니다. 2차 시험 결과 평균 55.55 로 합격하였습니다.

IV. 과목별 공부방법

1. 1차

1) 민법

동차 때와 삼시 때 모두 민법 공부는 객관식 문제를 반복하여 풀이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객관식 교재를 15회 이상 회독한 결과 동차 때는 92.5점, 삼시 때는 80점을 받았습니다.

한편, 60회 1차 시험을 기반으로 사후적으로 고찰해보면 객관식 교재와 기본서를 각각 절반씩 시간을 나누어 보는 것이 더욱 적합한 공부방법이라 생각합니다. 60회 시험처럼 문제 은행 형식에서 벗어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면 객관식 문제만을 반복해서 풀이한 경우 결코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변리사 시험 특성상, 이전 10년의 문제 유형과 전혀 다른 경향성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므로, 삼시 이상이신 분들이시더라도 기본서에 충실한 공부방법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2) 산업재산권법

동차 때는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각각 절반씩 시간을 할애해 공부했습니다. 특허 기본서 1회 독에 1달을 투자하면, 객관식 문제 풀이에 다음 1달을 투자하였고, 상표 기본서 1회 독에 2주를 투자하면, 객관식 문제 풀이에 다음 2주를 투자하였습니다.

한편, 동차 때는 특허, 상표, 디자인의 개념이 정확히 머릿속에 정립되지 않으므로, 기본 강의를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차 때의 저는 기본 강의 수강 시 들었던 수많은 의문이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해소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객관식 문제 회독만으로는 개념 정립이 이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회독을 통해 암기량을 늘리는 데 사용하시면 좋고, 기본 강의 수강 시 모르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이해해보려 노력해보시는 게 추후 시험 응시 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객

관식 문제지에 있는 내용에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시 때는 특히, 상표, 디자인 기본 개념의 공부에 이미 충분히 되어있는 상태였으므로,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 비중을 1:5 정도로 놓고 공부하였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이하다가 암기가 덜 된 부분이 나오면 해당 부분의 기본서 내용을 찾아 다시 읽고, 암기했습니다. 이처럼 객관식 문제 회독으로 암기량을 늘린 결과,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자연과학

자연과학 과목의 경우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충분히 연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 시험장에서 난이도 높은 물리, 화학 문제를 풀어낼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남들보다 너무 잘 칠 생각을 하기보단, 남들과 비슷한 정도의 성적을 받고 민법/특상디에서 고득점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삼시 때 생물은 박윤 교수님의 객관식 문제 풀이강의와 원동신 강사님의 화학 기본 강의 및 객관식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명확했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문제 풀이 연습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 대부분을 풀이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력이 되시는 분이라면 심화 강의를 수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용을 보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기타 (객관식 회독방법 등)

민법 과목의 경우 처음에는 민법공방연습 교재를 홀수 번 - 짝수 번 - 홀수 번 식으로 회독하여 풀이하였는데, 도중에 김동진 교수님께서 1번부터 순서대로 모든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회독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민법공방연습의 경우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판례를 연달아 문제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집필되어 있으므로 1번부터 순서대로 풀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타 과목의 경우, 홀수 번 - 짝수 번 - 홀수 번 식으로 회독하여 문제를 풀이하여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객관식 문제집을 천천히 오랜 시간 붙잡고 푸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빠르게 회독하고, 헛갈렸거나 틀린 문제는 표시해두었다가 다음 회독할 때 다시 한번 눈에 익히는 것이 더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동차 생의 경우, 모르는 문제를 붙잡고 있다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복 회독으로 머릿속에 내용을 주입하는 것이 암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2차

1)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객준형 변리사님의 기본서와 사례집 회독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분의 교수님 혹은 강사님을 정해 기본서, 사례집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독을 돌린 뒤 타 강사님의 gs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용을 과도하게 늘리지 말고 기본서와 사례집 그리고 gs에 있는 내용만 완벽하게 습득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을 늘리면 회독하는데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서, 사례집에 gs내용을 포함해 단권화하고 이를 완벽히 암기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집 회독 방법] 스터디원을 구해 월-금 온라인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사례집의 문제 12개를 각자 목차를 잡으면서 풀이하고,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은 정답을 확인하고 부족한 판례 암기를 하였습니다. 시험 보기 직전까지 민소 사례집 회독을 반복하여서 하였고, 그 결과 짱돌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민소 판례 암기에 강제성을 부여했고, 사례집을 통해 기본기를 닦을 수 있어 아주 유익했던 공부방법이었습니다.

2) 특허법

박형준 변리사님의 기본서와 사례집 회독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사례집 상, 하를 스터디원과 온라인으로 캠을 켜고 각자 문제 풀이를 하였습니다. 월-금 8시부터 9시까지 6문제 목차를 잡고 풀 뒤, 정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3월부터 시험 한 달 전까지 해당 방법으로 꾸준히 사례집을 돌렸고 대다수의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의 경우 최신 판례가 출제되는 경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실전 gs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4월에는 남슬윤희 변리사님의 실전 gs를 수강하였는데, 당시 최신 판례 암기가 거의 되어있지 않아 gs에서 거의 항상 꼴등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한편, 남슬윤희 변리사님께서 항상 모든 gs에 대해 상세한 피드백을 해주셨고, 해당 피드백 내용을 기반으로 판례 문구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암기가 덜 되어있었던 부분을 잘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다.

5월에는 박형준 변리사님의 실전 gs를 수강하였는데, 기본서 회독과 최신 판례 암기를 통해 기본기를 어느 정도 끌어올린 덕에 gs에서 좋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박형준 변리사님 강의의 경우, 지난 동차, 기득 기간 스스로가 직접 체득했던 수많은 점에 관해 이야기해주셔서 크게 공감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면서 답안 방향을 잡아야 한다, 답안지 작성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답안 방향을 정해야만 하고, 다수의 수험생이 작성하는 답안의 경향에서 어긋나지 않는 방향의 답안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와 같은 답안지 작성에 있어 큰 도움이 되는 조언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조언을 매 gs와 시험 당일까지도 되뇌면서 답안지를 작성하였고, 그 결과 2차 시험 특허법 응시 이후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스스로의 답안 내용에 대해 크게 불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 상표법

기본서는 최지환 변리사님의 기본서를 보았습니다. 과거 기득 때부터 해당 기본서를 사용하였기에 삼시 때도 큰 불편한 점 없이 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득 때는 기본서, 판례집 암기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스터디원을 만나 정해진 페이지 내용을 번갈아 가면서 말하는 방식으로 암기를 하였고, 판례집 또한 번갈아 가면서 판례 요지를 말하는 방식으로 암기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본서, 판례집 암기 스터디가 스스로의 상표 실력 상승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삼시 때는 기본서는 크게 많이 보진 않았고, 판례집과 사례집을 회독하였습니다. 스터디원과 월-금 9시부터 10시까지 상표 온라인 스터디를 하였는데, 사례집 6문제를 목차 잡고 정답 확인, 부족한 판례 암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례집 1회 독이 끝나면 스터디 시간 동안 판례집을 읽으며 암기하거나, 판례 요지를 typing 한 뒤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3년 5월부터 상표 gs를 수강하기 시작하였고, 5월에는 최지환 변리사님 gs를, 6월에는 한경훈 변리사님 gs를 수강하였습니다. 최지환 변리사님 gs는 기본에 충실한 내용으로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암기에 도움이 되어서 좋았던 반면, 한경훈 변리사님 gs는 수업 중에 판례의 강약 조절을 잘해주신다는 인상을 받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판례 법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해주시면서 판례 문구 암기를 정확히 할 것을 강조하셨는데, 해당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어 판례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식취 문제도 한경훈

변리사님 gs에서 두 번 정도 심도 있게 다뤄주셔서 목차 틀을 가져갈 수 있었고, 이 또한 시험에서 문제가 출제되어 답안을 논리정연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기득 때는 상표 54점, 삼시 때는 상표 61.66으로 항상 모든 과목 중 최고점을 받아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 최지환 변리사님 판례집을 회독하면서 판결요지를 익히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기본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한경훈 변리사님 gs에서 여러 다양한 논점을 접하고, 최신 판례를 정확히 암기할 수 있었던 덕에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선택과목

삼시 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여 디자인보호법으로 선택과목을 선택하였습니다. 정다운 변리사님 기본 강의, 실전 gs를 수강하였는데 강의 내용이 재밌었고, 또 쉽게 잘 가르쳐주셔서 큰 무리 없이 잘 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전 gs의 경우에는 첨삭은 받지 않았고 강의만 들었는데도 시험에 응시하기엔 충분한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정다운 변리사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대로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5) 기타 (답안지 작성법, 회독방법, 암기방법 등)

답안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답안지가 주는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스터디원과 답안지를 바꾸어 읽어보며 느낀 점은, 16페이지의 답안지가 주는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점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응시생의 답안지를 읽는 과정에서 교수님께서 모든 문장을 꼼꼼히 읽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최신 판례 잘 쓰고, 정답을 맞히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박형준 변리사님께서 모든 gs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최신 판례를 논점으로 낸 문제의 경우 판례 문구를 “정확하게” 쓴 사람이, 어떤 gs에서도 다뤄진바 없는 모든 수험생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 경우 “기본기”에 충실하게 목차를 잡고, 답안을 쓴 수험생이 고득점을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회독방법, 암기방법] 기본서, 사례집, 판례집 회독의 경우 민소는 한 달, 산재법은 일주일 단위로 회독을 돌렸습니다. 스터디원을 구해 함께 회독하고 암기하는 방식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V. 수험생활 일반

1. 건강관리, 멘탈관리 (슬럼프와 극복방법 등)

수험생활 동안 건강관리는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 자취방에서 공부하였는데, 피곤하면 초콜릿을 먹으면서 잠을 깨고 하루에 커피를 네 잔씩 먹으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잠이 깨지 않을 때는 침대에서 10분에서 30분 정도 잠을 청하고 다시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워서 중간중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온전한 정신으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식이 제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독서실/도서관에서 공부했던 기득 시절엔 학원/학교와 집 사이에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이동 후에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삼시 때는 학교 근처 자취방을 구해 방에서만 식사를 해결하고 가능한 온라인 강의로 대부분의 강좌를 수강하는 등 이동시간과 체력을 최대한으로 아꼈습니다.

슬럼프는 삼시 때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 왔습니다. 자취방에서 홀로 공부하는 것이 외로웠고 집에 있는 가족과 강아지, 그리고 남자친구가 많이 보고 싶어서 정신적으로 크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원동신 강사님의 화학 모의고사를 매주 치렀는데 매번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 매주 주말마다 자취방을 찾아와주셨고 일주일에 한 끼는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웃고, 멘탈 관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식사 시간을 고대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1차 시험 때까지 멘탈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1차 시험에 통과하고 2차 시험에 응시하는 시간에는 큰 슬럼프는 오지 않았고, 멘탈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기득 시절 시험에 떨어진 원인이 "기본기 부족"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후였기에, 기본기만 잘 갖추고 최신 판례만 잘 외워도 붙는 시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에 맞게 기본서, 사례집, 판례집, gs로 공부하였고, 큰 어려움 없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 공부장소, 생활리듬 (하루 시간 관리, 스터디 등)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 자취방에서 혼자 공부하였고, 스터디도 온라인으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스터디원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기득 시절 스터디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님을 체득했기에,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필요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서로 간의 시간 조정이 쉬웠고, 서로에게 필요한 스터디만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게는 스터디원 한두 명과만 스터디를 진행하는 방식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1차 준비하던 시절엔 매일 6시에 기상해 12시에 취침했습니다. 점심/저녁 시간은 1시간 ~ 1시간 반 정도로 가졌습니다. 2차 준비 시기엔 8시에 기상해 12시에 취침했습니다. 이전에 기득 시절에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 2차 준비가 더 부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니다.

3. 기타 (수험 기간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일, 가장 고마운 사람 등)

수험 기간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1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22년 9월 추석 연휴 때 가족이 추석 음식을 싸 들고 제 자취방에 와서 음식을 다 함께 먹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저의 강아지도 함께 와서 재미있게 놀고 휴식을 취했던 시간이 너무도 행복했기에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2차 준비 기간 중 속이 크게 쓰러 소화가 안 되었던 날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고디바 초콜릿과 네 가지 종류의 약을 사서 방문 앞에 걸어놓고 공부에 방해가 될까 저를 보지 않고 돌아갔던 일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남자친구가 약 사님께 조언을 구해 가져다준 약을 먹고 속 쓰림이 금새 없어져 공부를 잘 할 수 있었고, 절 배려해서 얼굴도 보지 않고 간 남자친구에게 크게 미안하고도 고마웠던 순간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수험 동안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리고 남자친구입니다. 수험 기간 남자친구를 거의 보지 못했는데, 단 한 번도 놀자고 제게 먼저 조르지 않고 항상 제게 부담 주지 않으려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또 매일같이 제게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주었던 남자친구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매일 매일 제 수험 고민을 들어주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주었던 남자친구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 ♥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제 친구 성현이에게도, 제가 합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절 응원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공부했었습니다. 시험공부 한다고 자주 못 놀아준 점이 아직도 정말 미안하고, 더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VI.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오랜 수험 기간 절 지지해준 올 엄마, 아빠, 지훈 오빠, 할머니, 할아버지, 선희이, 그루, 그리고 제 소중한 친구들, 승혜, 예진, 채현, 지영, 지희, 애은, 승민, 지유, 동환, 기원, 정현, 인혁, 동현, 지후, 은아, 지원, 유빈, 성미강, 윤미강, 보경, 진솔, 하정, 종명, 승우, 박형종 쌤 모두 모두 너무 사랑하고, 평생 제가 잘하면서 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합격자 TIP. 생동차 고득점 노하우

기본기 탄탄히

최신판례 암기 정확히

정답은 꼭 맞추기

gs는 최소 두 강사님 강좌를 들으면 상호 보완이 되어 좋습니다 !